

민주 “범여 비례정당은 더시민”

친조국 열린민주당과 선긋기 “부적절한 창당·공천절차 유감” 더시민, 비례후보 공천 절차 소수정당 추천 1~4번 배치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친조국을 표방한 열린민주당과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범여권 비례정당을 더시민이라고 명칭하며 지지층 이탈을 막아서는 한편 열린민주당의 ‘형제당’ 주장으로 중도 표심이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종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이후 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포함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명단 선결과 관련,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공천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거나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

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탈락된 분들이 그쪽(열린민주당)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민주당 전북 군산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출마를 결정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미투’ 논란으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공천 배제 인사를 공천한 데 대해 “우리 당원이었던 분들이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있는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총선 이후 양당의 합당 가능성이 없다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시민 측에서는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소수정당으로부터 2~3명씩 추천받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22일 저녁 명단을 발표한다. 더시민은 소수정당의 후보들을 1~4번에, 시민사회계 추천 후보들을 5~10번에 각각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시민은 오는 24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포함, 최종 후보 명단과 순번을 결정하게 같은 날 권리당원과 대의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모바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비례대표 후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4월15일 총선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라며 “그 후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는 대전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4월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에 대해 ‘선 긋기’를 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국정기조에 협력하는 주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추후 통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회견에서 “서로 없는 부분을 확장해가는 관계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두 개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 우회총 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1차 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대원 최고위원, 우 회총대표, 조민형 최고위원, 구본기 최고위원. /연합뉴스

26·27일 후보자 등록...총선 일정 본격화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제21대 총선 일정이 본격화한다. 2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각 정당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3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명부 작성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4월3일 최종

인원을 확정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 기간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번 총선은 선거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4월7일부터 10일까지는 선상투표를 진행하고,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본선거인 4월15일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이병훈 “골목상권 전용화폐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골목상권 전용화폐의 발행규모를 현행보다 2배 더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보증규모의 확대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발행규모 확대 방안 마련과 사용 캠페인을 전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 경감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오섭 “대학 등록금 인하·환급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교의 학사일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인하·환급 등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대학생들이 국가적재난 상황의 사각지대에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까지 등록금 인하·환급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강의의 질을 높이고 실습·실습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형석 “생활 인프라 투자 대폭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있는 삶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로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경환, 행복 공약 9번째 시리즈 발표

민생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22일 “복구를 바꾸는 최경환의 행복 공약시리즈 아홉 번째로 도서관, 수영장 등 ‘주민친화형 생활체육·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도서관 시설확충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문화 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암도서관 증축, 북가페형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수영장을 갖춘 일곡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천장 받은 김원이 “승리 완성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지난 20일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천장을 받은 후 “민주당 후보 공천장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던 당원과 시민들께서 저에게 준 명령이자 책임”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해 ‘새로운 목표’와 ‘민주당 승리’를 완성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긴 침체를 벗고 새로운 목표를 실현할 가치와 실력을 가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목포시민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소하 “재난소득 100만원 현실적 대안”

정의당 윤소하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전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허용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에는 총 5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IMF때 기업에 투여한 168조의 공적자금과 같은 국민에게 투여하는 공적자금으로 봐야한다”며 “즉각 전국민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비례대표 3번 배정

광주 광산율이 지역구인 권은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선정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분류되는 3번에 배정됐다.

국민의당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1번에 최연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과 2번에 이태규 의원, 3번에 권은희 의원을 배정한 비례대표 최종추천 후보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 간호부원장이 소속된 동산병원은 안 대표가 최근 2주 동안 대구에 내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봉사활동을 한 곳이다.

4번에는 ‘조국 퇴진’ 서울대 집회를 주도한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이, 5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한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배치됐다. 김도식 당 대표 비서실장과 안혜진 시티플러스 대표, 김윤 서울시장 위원장, 김예림 당 부대변인이 6~9번에 이름을 올렸고, 안 대표와 대구 의료봉사활동을 함께한 사공정규당 코로나19대책팀스 크포스 위원장이 10번을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